

“첨단산업 지정,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 반영해야”

양향자 “재생에너지 설비 호남에 63% 집중...지역 균형발전 기여” 평가지표, 선도기업 유무 등 수도권에 유리한 항목에 70점 배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평가항목이 수도권에 유리하게 짜여져 있어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불이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시장의 기본 요건인 'RE100' 충족과 산업단지 조성의 전제 사항인 원활한 전기공급 능력 등을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 평가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글로벌시장 진출과 산업 조성에 가장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손쉽게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남과 경남 등 지방이 수혜를 입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11일 양향자 국회의원(서구을)은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전체 회의에서 첨단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지표에 미래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항목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세부 평가지표'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45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25점),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가능성(30점)이 평가 항목으로 배정되었다. 이 같은 평가 기준에 대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선



도기업 유무, 지역 내 연구기관의 기술 역량, 집적화 효과 등 기존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수도권에 유리한 항목이 70점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 항목은 턱없이 부족하다. 양 의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산업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지형을 예측한 선제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미 무역장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RE100' 달성을 위해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만 3096GWh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제철 등 산업용 전력 사용 상위 10개 기업의 사용량(6만 5351GWh)보다 적다. 또 양 의원은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와 발전은 호남에 집중돼 지난해 남는 재생에너지(2만1189GWh)만으로 삼성전자의 전력사용량(1만8412GWh) 전부를 공급하고도 남고, 2036년 태양광 보급 목표인 65.7GW의 약 63%가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28일 한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수도권 신도시 등 신규 전력 공급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 투자에 최소 22조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설비 투자비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다.

양 의원은 “송·변전 설비 투자비 외에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발생, 장거리 공급에 따른 전력손실, 북상조류침화 등 유무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토 전력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생태계 활성화를 고려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특화단지가 지속가능하고 세금 효율을 얻으려면 산업성공가능성이 있는 지역인가 고려가 중요하다”며 “RE100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성공가능성이 중요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첨단산업특화단지지는 오는 7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첨단산업특화단지는 전문위원회 평가 및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이재명(가운데)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HatGPT 관련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유람인가 검증인가”

“원전 오염수 방류 위한 명분·과학적 검증 없는 투기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두고 “과학적 검증 없는 (오염수) 투기는 안 된다”며 제대로 된 조사 등이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번 현장 시찰이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만큼 단순 시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피스 등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이 문제 해결 없는 투기는

해양 안전에 치명적”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 한 시찰단은 전혀 무의미한, 면피성 이벤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합의한 것인가”라며 “유람인가, 안전성 검증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당 대입공약외교대책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도 시찰단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시찰은 두루 둘러본다는 뜻인데,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이 시찰만으로 검증되는 문제인가”라며 “정부가 시찰단을 명분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오염수 방류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대장동 재판’ 이재명 “사익 추구 없었다”

성남FC 후원금 혐의 등 기소...“檢, 부정한 돈 못찾아”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부정한 돈 한 톨 찾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그와 함께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변호인은 위례·대장동 혐의에 대해 “검

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백회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 대표가 단 한 톨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유동구의 반복된 진술에 기초해 모든 것을 이 대표와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 없다”며 검찰에 보고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성남FC 혐의와 관련해선 “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권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되는 것을 감수하려는 장관이나 지방 자치단체장이 있겠느냐”며 “법원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인식 여부, 각 사업에서의 이익 취득, 업무상 배임에 따른 공사의 손해 범위 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크게 세 덩어리인 공소사실 중 대장동 부분을 먼저 심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변호인 측은 세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는데 기록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면 방어권과 변론권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위례 신도시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농민 죽이는 저율관세 양파 수입 중단하라”

이개호 의원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1일 성명서를 통해 물가안정을 빌미로 저율관세 양파수입 물량 확대 조치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하고 양파농민들을 죽이는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20,645톤에서 40,645톤으로 2만톤 확대하는 ‘시장접근분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추가 수입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정부가 추진한 4차례의 양파수급 정책이 모두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정책이었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우리 양파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정

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눈에는 농민들이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5월 양파 수확 인건비는 지난 20년 평균 8만원에서 올해 15만원대로, 비료값은 요소 파동 이후 20kg기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00% 폭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양파의 본격 출하시기인 5월에 양파를 수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국산 양파 물량이 크게 증가, 가격이 오히려 하락세중인 지금 수입 양파물량을 함께 시장에 풀 경우 가격 폭락이 현실화되고 우리 양파농가에 대한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임을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명품 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장: 광주 서구 서향2길3(서향동)